



임효명(독립연구자)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자연재해의 증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태 위기는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는지, 즉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기독교는 인간을 창조 세계의 최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지배자로 선포하고 자연을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 선포함으로써 자연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기독교 창

*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2021S1A-5B5A17056868).

조론은 서구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지만, 자연과 인간의 위계적 이원론(hierarchical dualism)과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기후 재앙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독교학계는 생태 해석학(ecological hermeneutics)이나 생태 신학(ecotheology), 녹색 신학(green theology), 기독교 생태 윤리 등을 발전시켰다.

이 연구는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지구에 관심을 갖고 성서를 읽어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재고하고 재구성하여 지구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대처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인 성서 읽기는 지구성서팀(Earth Bible Team)이 고안한 생태 해석학을 사용한다. 생태 해석학은 성서를 읽는 ‘렌즈’¹를 바꾸어 끼는 것으로서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전향하여 지구와 지구 공동체의 시각에서 성서를 읽는 것이다. 고대의 저자가 지구 공동체의 시각이나 생태 위기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고대 문서를 새로운 렌즈를 끼고 읽어 시대적 개연성과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는 것은 성서학계에서 이미 정착된 방법론이다.² 언스트 콘래디(Ernst Conradie)는 이러한 렌즈를 ‘발견의 열쇠 혹은 교리적 열쇠(heuristic or doctrinal keys)’라고 부르며, 그 역할을 성서 본문의 의미와 시대적 맥락의 의미를 열어(구성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³ 지구의 입장에서 읽을 때 인간중심적 읽

1 David G. Horrell, Cheryl Hunt and Christopher Southgate, “Appeals to the Bible in Ecotheology and Environmental Ethics: A Typology of Hermeneutical Stance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1.2 (2008): 235.

2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출발점은 성서 자체가 아니라 세계관이자 정치적 작업으로서 페미니즘의 관심들”이다. J. Cheryl Exum,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65.

3 ‘교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언스트 콘래디는 지구 성서가 성서를 읽는데 적용하는 생태정의 6원칙을 교리적 키(doctrinal keys)에 포함시킨다. 그는 교리적 열쇠로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동방정교), 이신칭의(루터교), 하나님의 왕국(통치; 켈빈), 죄-은혜(어거스틴), 자연-은혜(토마스), 그리스도를 본받기(토마스 아 켈피스), 새 계약의 개념. .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생태적 온전함. . . 등’을 예로 든다. Ernst Conradie, “The Road Towards an Ecolog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Herme-

기로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자연에 대한 상징과 인식을 문제시하게 되고, 현재의 생태 위기와 본문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 방법인 생태적 접근법의 발전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스바냐의 야웨의 날에 생태 해석학, 특히 저항적 읽기를 적용한다. 저항적 읽기를 통해 이 연구는 인간중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야웨의 날을 지구와 지구 공동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태정의(ecojustice)에 관련된 질문을 제기한다. 연구의 목적은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지구 공동체를 착취하고 억압하며 위협에 빠뜨린 인간중심적인 전통적 성서 읽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데에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읽기는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과 위계적 관계를 해체하여 인간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이다. 스바냐의 야웨의 날은 심판뿐 아니라 회복과 희망도 포함하고 있다(3:9-20). 그러나 이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더 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에 집중하여 인간중심성이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드러낼 것이다.

2. 생태 위기와 생태 해석학

기독교 세계관과 환경문제의 관계에 주목한 대표적인 인물은 린 화이트(Lynn T. White, Jr.)이다.⁴ 1967년 발표된 그의 논문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반론을 생산했고 동시에 기독교

neutics,” *Scriptura* 93 (2006), 305-314.

4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내에 ‘생태적 회심’이라 부를만한 각성을 불러왔다. 화이트는 중세에 기독교가 자연과 인간 간에 위계적 이원론의 관계를 수립하고, 이교를 정복하여 애니미즘(animism)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어떠한 감정 이입도 없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⁵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 설정은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⁶

화이트의 비판자들은 그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환경 위기에 ‘중대한 죄과(huge burden of guilt)’⁷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라는 한 가지 요인만을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환경문제라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적절하게 지적한다. 그들은 환경 파괴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 이외에 시장 자본주의, 자원 소유의 민주화 등 다른 요소들이 있음을 주장하며,⁸ 타종교가 우세한 지역에서도 자연 파괴가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반론들은 환경문제에 기독교 신학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단

5 윗글, 1205.

6 위계적 이원론은 영과 물질, 정신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정 등 세계를 이분화하고 여기에 선과 악의 도덕적 이분법을 결합하여 전자를 선으로 후자를 악으로 본다. 존재론적 이원론과 도덕적 이분법,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권력관계에서 남성 지배 계급은 사물을 정의하고, ‘타자’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육적이고 감각적인 ‘타자’는 그들을 다스리는 이성적인 머리에 복종해야 함에도 실제로 복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억압과 징계는 정당화된다. 이러한 사고에서 육체, 여성, 자연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정신이 몸을 지배하고, 이성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것을 지배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여야 하는 자연적 위계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Rosemary Radford Ruether, “Dualism and the Nature of Evil in Feminist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5.1 (1992), 26-39 참조.

7 White, “The Historical Roots,” 1206.

8 일레로 루이스 몬크리프(Lewis Moncrief)는 시장자본주의, 자연 자원의 소유권의 시민으로의 이동, 미국의 경우 서부 개척 경험 등의 경제문화적 요소를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한다. Lewis W. Moncrief, “The Cultural Basis of Our Environmental Crisis,” *Science* 170 (1970), 508-512.

9 이-푸 투안(Yi-Fu Tuan)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가 우세한 동양지역에서도 자연 파괴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음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Yi-Fu Tuan, “Discrepancies between 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ur: Examples from Europe and China,” *Canadian Geographer* 12 (1968): 176-191.

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환경위기는 성서 본문을 새롭게 읽으며 성서 본문과 그 해석이 환경 위기에 책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성서에 대한 생태 해석학은 크게 회복적 읽기(readings of recovery), 저항적 읽기(readings of resistance), 수정적 해석학(revisionist hermeneutics)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¹⁰ 회복적 읽기는 성서 자체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아니며, 성서 본래의 긍정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왜곡한 해석 전통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친환경적 성서 본문을 재평가하고, 문제적 성서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탐구하며, 위기에 대응할 기독교 전통을 회복하고 재발견하려 노력한다. 일례로 2008년 출간된 녹색 성서(The Green Bible)는 지구에 관심을 둔 본문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성서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 성서에서 지혜를 구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청지기론이나,¹¹ 자연친화적 예수상, 그리스도 안의 우주적 구속에 관한 구절

10 ‘회복적’ ‘저항적’ 읽기는 프랜시스 왓슨(Francis Watson)이 사용한 용어이다. Francis Watson, “Strategies of Recovery and Resistance: Hermeneutical Reflections on Genesis 1-3 and its Pauline Recep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5 (1992): 79-103; 생태 해석학의 세 가지 부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Horrell et al., “Appeals to the Bible in Ecotheology and Environmental Ethics,” 219-238.

11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형상이고 대리자였으며, 제국 곳곳에 놓였던 왕의 형상은 왕의 통치의 상징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땅을 정복하고(כָּבַשׁ/카바쉬) 지배하라(רָדָה/라다)는 명령(창 1:28)을 순화시키고, 책임있는 대리자, 선한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게 하였다. 생태 위기라는 맥락에서 ‘정복과 지배’ 대신 ‘경작(עָבַד/아바드)과 지킴(שָׁמַר/사마르)’(창 2:15)이 부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헤이블은 청지기 모델도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라 지적한다. 인간은 청지기로서 특별한 존재이며 자연은 인간의 보살핌의 ‘대상’이다. 청지기로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과도한 권력을 소유하며 여전히 다스리므로 자연과 인간이 상호연결된 주체적 존재들로서 생존을 위해 연대하며 보살피는 것을 담야할 상징으로 부적합하다. 청지기 모델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다음을 보라. Clare Palmer, “Stewardship: A Case Study in Environmental Ethics,” in *The Earth Beneath: A Critical Guide to Green Theology* (eds. Ian Ball, Margaret Goodall, Clare Palmer and John Reader; London: SPCK, 1992), 67-86; The Earth Bible Team, “Guiding Ecojustice Principles,” in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d.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5-46; Peet J. Van Dyk, “‘Responsible Stewardship’ - The Root of All Evil in Eco-Theology?” *Old Testament Essays* 28, 2 (2015): 525-30.

들(롬 8:18-25; 골 1:15-20; 엡 1:10)에 대한 재발견 등에서 찾을 수 있다.¹²

저항적 읽기는 성서 자체를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자연과 관련하여 일부 성서 본문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환경에 유해한 인간중심주의를 조장하는 구절들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구절들, 물질 세계를 언젠가 파멸될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들을 담은 성서 구절을 드러내고 그들에 저항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섯 권으로 된 지구성서 씨리즈를 낸 지구성서 프로젝트(Earth Bible Project)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¹³ 지구성서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저항적 읽기는 생태정의원칙(Ecojustice principles)이라는 여섯 가지 잣대로 성서 본문을 분석한다.¹⁴

첫째, 모든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의 원칙(the principle of intrinsic worth),

-
- 12 저항적 읽기의 또 다른 부류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입각하여 환경 문제 제기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묵시적 종말론의 시간표에서 이 세상의 파멸은 예정된 것이며 재림의 전조이기 때문에 지구의 보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에게 물질 세계는 언젠가 사라질 소모품이다.
 - 13 지구성서는 전반적 기초가 저항적 읽기에 속하지만 저자와 본문에 따라 회복적 읽기도 포함한다. 띠어도어 히버트(Theodore Hiebert)는 루아흐(תּוֹאֵחַ)를 통해 인간, 인간이 아닌 생물체, 그리고 하나님까지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는 루아흐가 지구를 감싸는 공기이며, 인간과 모든 생물체의 숨이고 생기기이며, 하나님의 숨이자 영이라 주장한다. 그의 해석에서 인간과 자연의 차별성은 해체되고 인간은 지구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Theodore Hiebert, "Air, the First Sacred Thing: The Conception of תּוֹאֵחַ in the Hebrew Scriptures,"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s.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Atlanta: SBL, 2008), 9-19.
 - 14 지구성서 팀의 생태해석학 방법은 다음의 논문들에 중복되어 소개된다.
Norman Habel, "Introducing the Earth Bible Commentary Series," in Norman Habel,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1-16;
_____,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1-8.
_____,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46,2 (2012), 97-105;
_____, "Ecological Criticism," in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eds. Steven L. McKenzie and John Kaltn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39-58.
여섯 가지 생태정의원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The Earth Bible Team, "Guiding Ecojustice Principle," in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d. by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38-53을 보라. 지구성서팀의 생태해석학은 유연희, "'그녀가 운다' - 생태비평으로 읽는 예레미야 12장," 『성경원문연구』 49 (2021): 50-74에도 소개되어 있다.

둘째, 생명체들의 상호 연관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terconnectedness), 셋째, 주체로서 지구의 목소리의 원칙(the principle of voice), 넷째, 역동적인 우주적 디자인 속에서 지구와 지구의 각 구성 부분이 갖는 목적의 원칙(the principle of purpose), 다섯째, 상호 돌봄의 원칙(the principle of mutual custodianship), 여섯째, 지구와 그 구성원들의 인간의 불의에 대한 저항과 정의를 위한 저항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istance)이다.

지구성서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읽기는 성서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의심에서 출발한다(suspicion). 그들의 저항적 읽기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집단, 곧 지구와 지구공동체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성서를 다시 읽고 이해하려고 시도한다(identification). 이러한 읽기는 기존 해석에서 무시되거나 억눌리거나 감추어졌을지 모를 목소리들과 관점들을 성서 본문에서 찾아내려 한다(retrieval).¹⁵

회복적 읽기와 저항적 읽기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이 수정주의적(revisionist) 읽기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제대로 읽기만 하면 성서가 환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회복주의적 읽기의 단순성을 비판한다. 동시에 그들은 성서 밖의 “세속적, 해방적”¹⁶ 기준(생태정의 원칙)으로 성서를 판단하는 저항적 읽기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엑서터 프로젝트(Exeter Project)로 대변되는 수정주의는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정통주의(Christian orthodoxy)와 조화되면서 대화 관계에 있는 생태 신학 구성”을 지향한다.¹⁷

15 Habel,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4-5.

16 Horrell et al., “Appeals to the Bible,” 219. 수정주의 읽기의 대표적 저술로는 David G. Horrell, Cheryl Hunt, Christopher Southgate and Francesca Stavrakopoulou, eds.,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New York: T & T Clark, 2010)가 있다.

17 이러한 서술은 ‘기독교 정통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불가피하게 한다. 엑서터 프로젝트가 보

3. 스바냐서와 생태해석

스바냐서는 야웨의 날에 발생할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파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태 해석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본문이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야웨의 날로 요약된다. 그가 전하는 심판과 회복 모두가 야웨의 날(יְהוָה/יום-야웨)에 일어난다.¹⁸ 스바냐서에서 야웨의 날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세 번(1:7, 14절2회) 등장한다. 그러나 ‘야웨의 희생의 날’ (1:8), ‘그 날’ (1:10, 15),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1:15), ‘야웨의 분노의 날’ (2:3) 등의 다양한 구에서 ‘날’ (יְהוָה/יום)은 맥락상 ‘야웨의 날’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해석자들은 야웨의 날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야웨의 날은 인간사에 야웨의 간섭을 불러온다”¹⁹는 말은 야웨의 날이 인간중심적으로 해석되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스바냐가 그리는 야웨의 날은 인간뿐 아니라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파멸을 다룬다. 야웨의 날은 지구²⁰를 휩쓰는 일반적인 파멸과 특정한 역사적 실체인 유다와 이방 국가들을 겨냥한 특수한 파멸을 동시에 담고 있다.

는 ‘기독교 전통주의’는 “참으로 기독교적이라 하기에 충분할 만하게 전통에 충실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구원의 문제에 다소 과도하게 집착한 전통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히 창조적인 것”이다. David G. Horrell et al., eds, *Ecological Hermeneutics*, 9.

18 ‘야웨의 날’은 예언서에서 ‘야웨의 날’이라는 정확한 문구로 등장하는 외에 ‘그날’로도 표현된다. (사 2:12; 13:6, 9; 22:5; 34:8; 렘 46:10; 겔 7:10; 13:5; 30:3; 욥 1:15; 2:1, 11; 2:31; 3:14; 암 5:18, 20; 욥 1:15; 습 1:7, 14; 습 14:1; 말 3:23); 야웨의 날은 심판뿐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날로도 묘사된다. 야웨의 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용례는 Richard H. Hiers, “Day of the Lord,” in *Anchor Bible Dictionary*, 282-83을 보라.

19 Greg A. King, “The Day of the Lord in Zephaniah,” *Bibliotheca Sacra* 152 (Jan.-Mar. 1995), 18.

20 생태해석에서 ‘지구’는 총체적인 ‘생태 시스템(total ecosystem), 즉 생명망(the web of life)’을 의미한다. Habel,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3.

1)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진멸로서 아웨의 날(1:2-3)

스바냐 1장 2-3절 두 절은 모두 “땅의 표면에서, 아웨의 말이니라”라는 동일한 구로 맺음으로 독립된 문학 단위를 형성한다. 이 두 절은 범지구적 파멸의 날로서 아웨의 날을 선포한다. 아웨는 먼저 ‘땅의 표면에서’(הָאָרֶץ מִפְּנֵי מַעַל/메알 페네 하이다마) ‘모든 것’(כָּל/콜)을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한다. ‘땅의 표면에서’라는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 성서에서 총 열세 번 등장한다.²¹ 열세 번의 용례 중 한 번(창 8:8)을 제외한 모든 용례가 파괴와 관련된다. 땅의 ‘표면의 모든 것’은 3절에서 사람과 짐승(וְהַבְּהֵמָה וְהָאָדָם/아담 우베헤마), 공중의 새(עוֹף הַשָּׁמַיִם/오프-하사마임), 바다의 물고기(דְּגַי הַיָּם/테게 하얌)로 구체화된다. 이 목록은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만 선별적으로 파멸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담 우베헤마’(וְהַבְּהֵמָה וְהָאָדָם)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메리즘(merism)이다.²² 즉,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파멸하겠다는 총체적 파멸의 선언이다. 3절은 동물에서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더한다. 세계를 하늘, 땅, 물로 삼분하였던 고대 세계관(창 1:6-10)에서 볼 때 세 영역의 생명체가 모두 파멸되는 것은 범창조계의 생명체가 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²³

총체적 파멸의 선포에서 주목할 것은 파멸될 대상의 목록에 어떠한 평가 구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생물들을 가리키는 명사들은 가치중립적이며,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 관계없이 파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3aβ에서 ‘악인들을 넘어지게 하리라’(אֶת הָרָשָׁעִים הַמִּכְשָׁלֹת)은 선포가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며, 이 구가 주석이라는 견

21 창 4:14; 6:7, 7:4, 8:8; 출 32:12; 신 6:15; 삼상 20:15; 왕상 9:7, 13:34; 렘 28:16; 암 9:8; 습 1:2, 3.

22 Ehud Ben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56. 예를 들어 창 6:7, 7:23; 출 9:9, 10; 레 7:21; 민 3:13; 겔 14:13; 욘 3:7; 학 1:11; 시 36:6; 전 3:19.

23 윗글.

24 ‘악인들을 넘어뜨리리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해가 지배적이다.²⁵ 이 구를 제외한 단락의 다른 부분들이 모든 지구 생명체의 파괴를 가리키는 반면 3aβ는 파괴의 범위를 악인들로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일찍이 1912년에 스미쓰(J. M. P. Smith)는 이 구를 주석으로 보았고, 이 주석을 단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징벌에 불의함을 느낀 독자’일 것이라 추정하였다.²⁶

사람과 동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이루어진 목록은 창조설화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순서라는 점에서 파멸의 심각성을 암시한다.²⁷ 창세기 1장의 창조설화에서 하나님은 물고기, 새, 짐승, 사람의 순으로 생물을 창조한다(창 1:20-27). 스바냐 1장 3절의 살생 목록은 이 순서를 뒤집은 것으로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순으로 진행된다. 창조기사와 함께 읽으면서 마이클 디로슈(Michael De Roche)는 “스바냐는 단순히 인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창세기 8장 21절의 약속만 무효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스바냐는 땅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 상실을 선포하며, 더 중요하게는 창조 뒤집기(reversal of creation)를 선포한다”고 해석한다.²⁸ 창조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지배권이 취소되고, 인간 창조가 취소되고, 인간 이전에 창조된 생물체들이 차

25 근거로는 2-3절의 다른 곳에서는 파멸될 대상에 중립적인 단어가 쓰인 것과 대조적으로 두 단어 모두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점, 2-3절의 특징적인 반복적 소리 구조가 없는 점, 3절의 운율을 깨뜨리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윗글, 58. 디로슈(Michael de Roche)도 이 구가 시의 주제와 리듬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이차적인 것으로 본다. Michael De Roche, “Zephaniah 1.2-3: The ‘Sweeping’ of Creation,” *Vetus Testamentum* 30.1 (1980), 105.

26 J. M. P. Smith, W. H. Ward, and J. A. Bew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Micah, Zephaniah, Nahum, Habakkuk, Obadiah and Joel* (Edinburgh, 1912), 186. De Roche, “Zephaniah 1.2-3: The ‘Sweeping’ of Creation”, 104, 108에서 재인용. 총체적인 파멸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 학자들은 2, 3절의 총체적 파괴가 스바냐서의 원래 예언에 포함되었다는 데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27 다수의 학자들이 스바냐 1장 2-3절과 창세기 1-11장의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De Roche, “Zephaniah 1:2-3: The ‘Sweeping’ of Creation,” 104-9;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32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126-27; Adele Berlin,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A (New York: Doubleday, 1994), 81-82.

28 De Roche, “Zephaniah 1.2-3: The ‘Sweeping’ of Creation,” 106.

례로 취소된다. 스바냐가 그리는 파국이 결국 창조의 취소라는 것은 이러한 창조의 역행이 암시된 데서 드러난다.²⁹

범창조계의 파멸을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창조가 전적으로 창조주의 주권에 속한 것처럼 창조된 세계의 파멸 역시 창조주의 주권에 속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스바냐가 선포하는 범창조계의 심판(1:2-3),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1:4-28),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2:4-15)은 야웨의 주권이 유다라는 특정 국가와 열방을 넘어 온 창조계를 포괄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모압과 암몬(동), 블레셋(서), 구스(남), 앓시리아(북)가 동서남북 사방을 대표하는 나라³⁰라는 점 역시 야웨의 보편적인 주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한다. 그러나 창조계에 대한 야웨의 주권 선포의 그늘에는 죄 없는 사람들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의 죽음이 있다. 범창조계의 파멸을 창조계의 존재 이유의 훼손에서 설명하려는 독자들도 있다.³¹ 그러나 창조주의 주권이나 창조 목적 등으로 야웨의 파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야웨-인간-자연으로 구성된 위계 질서를 상정한다. 창조 질서의 훼손과 그로 인한 파멸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있다. 그럼에도 지구와 그 구성원 모두가 인간과 함께 멸절된다면 생존을 위해 상호 연결된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과도하게 설정되어있다. 이러한 읽기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고 고양시키는 인간중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³²

29 창조의 취소라는 모티프는 예레미야 4장 23-26절에서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הוֹלָה וְרֵקָה)로 변주된다.

30 King, "The Day of the Lord in Zephaniah," 21.

31 "창조의 질서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세워졌고, 이 이유들이 훼손되었다면, 세계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Bruce C. Birch, Walter Brueggemann, Terence E. Fretheim, & David L. Peterse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316; 한국어 역본, 브루스 C. 버치, 월터 부르그만, 테렌스 E. 프레타임, 데이비드 L. 페터슨 지음, 차준희 역,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새물결플러스, 2016).

32 이러한 시각은 자연을 '관리' 하려는 인간의 강박 관념에도 들어있다. 현대 생태학은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었을 때 생태계가 최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aul W. Taylor, *Respect for Nature: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25th anniversary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창조설화 뿐 아니라 홍수설화와 스바냐의 상호분문성(intertextuality)은 스바냐의 총체적 과멸의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한다.³³ 홍수설화에서 세 번(창 6:7, 7:4, 8:8) 쓰이는 ‘땅의 표면으로부터’라는 구는 스바냐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로서 스바냐와 홍수설화를 함께 읽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야위스트(Yahwist) 자료와 엘로히스트(Elohist) 자료로 나누는 홍수 설화(창 6:5-9:17)³⁴를 노먼 헤이블은 아다마(אָדָמָה) 신화와 에레츠(אֶרֶץ)³⁵ 신화로 분류하여 분석한다.³⁶ 아다마 신화와 에레츠 신화는 각각 홍수로 땅의 생물이 파괴된 이유를 다르게 서술한다. 아다마 신화에서 홍수의 원인은 아담에게 있다(6:5). 아웨는 아담의 악함으로 인해 아담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멸하기로 결정한다. 반면 에레츠 신화(창 6:11-13)에서 홍수의 원인은 모든 육체(בְּכָל-בָּשָׂר/כל 바샤르)에 있다. 엘로힘이 볼 때 에레츠가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한데, 그 이유는 모든 육체가 자신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즉 모든 육체의 행위가 에레츠를 오염시킨다.³⁷ 그 결과 엘로힘은 에레츠와

Press, 2011, 196). Peet J. van Dyk, “Responsible Stewardship”-The Root of All Evil in Eco-Theology?” *Ole Testament Essays* 24.2 (2011): 531에서 재인용.

33 스바냐 1장을 홍수설화와 관련하여 읽는 독자로는 Smith, *Micah-Malachi*, 126-27;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John D. W. Watts,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John Goldingay, “Zephaniah,” in *Minor Prophets*, vol. 2, UBC (eds. John Goldingay and Pamela J. Scalis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등이 있다.

34 홍수설화의 야위스트 자료(J)와 엘로히스트 자료(E) 구분은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S.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395-398을 보라.

35 에레츠는 하늘에 대비된 지구 전체 혹은 정치적 영역 혹은 땅을 가리킨다.

36 아다마 신화에서 자연의 주된 영역 혹은 주인공은 아다마이고, 인간은 아담, 신은 야웨이며, 다른 생물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에레츠 신화에서 자연의 주 영역 혹은 주인공은 에레츠이고, 신은 엘로힘, 생물은 바샤르(בָּשָׂר)라고 불린다. 헤이블의 아다마 신화와 에레츠 신화는 각각 J 자료와 E 자료에 상응한다. 그는 창세기 6장에서 5-8절을 아다마 신화로, 6장 11-13절을 에레츠 신화로 분류한다. 5-8절에서 땅은 ‘에레츠’로 칭해진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 신은 ‘야웨’라는 명칭에 근거하여 아다마 신화로 분류한 것이다. Norman Habel,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The Earth Bible Commentary 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83-87.

37 땅의 과멸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땅을 더럽힌 주체를 거민으로 한정한다(사 24:5).

함께 모든 바싸르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한다.

아다마 신화는 야웨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일련의 목록으로 된 생물들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스바냐 1장 2-3절의 야웨의 날의 심판 전망과 유사하다. 에레츠 신화의 경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엘로힘은 땅 위의 모든 육체가 부패한 것을 에레츠가 부패한 것과 동일시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모든 육체의 행위가 에레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두 가지 신화에서 헤이블은 죄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³⁸ 그는 또한 야웨가 모든 생물을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³⁹ 헤이블의 비판은 그대로 스바냐의 야웨의 날에도 적용이 된다. 야웨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창조계를 파멸시킨다. 홍수설화에서는 최소한 노아의 가족 여덟과 그의 방주에 탄 생물들은 파멸을 면한다. 그러나 스바냐 1장 2-3절이 전망하는 야웨의 날에 살아남는 생물은 없어 보인다. 홍수설화에서 땅은 파멸을 면하지만, 스바냐의 야웨의 날에는 땅도 파멸을 피하지 못한다.

스바냐 1장 2-3절에서는 땅 위의 생물만 언급하므로 땅 자체는 보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절의 선포에서 땅(אֶרֶץ/에레츠) 역시 멸절의 대상이 된다. 스바냐는 야웨의 분노의 날에 온 땅이 야웨의 정열의 불에 삼켜질 것을 선포하고 곧이어 접속사 키(כִּי/때문에)가 이끄는 절로 야웨가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즉, 땅의 모든 거민의 멸절은 온 땅의 멸절과 동일시되므로 ‘온 땅’은 거민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온 땅(כָּל־הָאָרֶץ/콜 하아레츠)’과 ‘그 땅 모든 주민(כָּל־יְשֻׁבֵי הָאָרֶץ/콜 요세베 하아레츠)’을 동일시하는 상징적 선포는 독자의 시선을 거민의 운명에 고정시키며

38 Habel,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83-87, 90.

39 윗글, 85.

로 온 땅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온 땅이 꺾게 되는 폭력을 독자로 보지 못하게 한다.⁴⁰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정의는 무시되게 마련이다.⁴¹ 거민의 상징으로 ‘온 땅’을 사용하는 데는 인간중심성과 지구를 인간만을 위한 장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로 보는 편견이 숨어있다.

땅(에레츠)은 창세기 1장 11-12절과 24절에서 엘로힘의 창조의 동역자로 묘사된다. 엘로힘은 땅에게 식물과 땅의 생물을 내도록 명하고 땅은 그대로 행한다. 인간과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땅이 낸 식물을 양식으로 살아간다(1:29, 30). 창세기 1-2장의 창조설화는 땅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근원이요, 모든 생물의 삶을 유지해주는 주체로 묘사한다. 창조설화에서 볼 때 사람과 동물, 공중의 새는 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땅의 표면으로부터 휩쓸려지는 것은 이들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땅은 자신이 내어놓은 생명체들, 즉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2-3절의 범우주적인 파멸은 4절에서 유다로 범위가 좁혀지고 다시 인접 국가로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범우주적 파멸 선포에 불편함을 느낀 독자들은 그것이 예언자적 과장법(prophetic hyperbole)이었다는 견해를 표한다. 일례로 에후드 벤 즈비(Ehud Ben Zvi)는 1장 2절과 18절이 우주적 파멸이라기보다는 유다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제안한다.⁴² 예언자들은 극적 효과를 위해 과장법 같은 수사적 장치를 폭넓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극적

40 칼린다 로즈 스티븐슨(Kalinda Rose Stevenson)은 에스겔 36장 22-32절에서 산들을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산’을 사용하였을 때 독자들은 사람들의 운명만 보고, 상징으로 사용된 산의 운명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Kalinda Rose Stevenson, “If Earth Could Speak: The Case of the mountains against YHWH in Ezekiel 6: 35-36,” in *The Earth Story in the Psalms and the Prophets* (ed.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66-167.

41 윗글, 167.

42 Ben Zvi,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54, 134-36.

효과를 위한 상징이 지구와 지구공동체 같은 죄 없는 희생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사적 장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수사를 낳은 문화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사의 사용은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일반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2) 유다의 심판과 창조계 파멸의 인간중심성(1:4-18; 3:1-13)

스바냐는 1장 2-3절에서 동물과 사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목록으로만 나열할 뿐 이들이 왜 함께 파멸을 맞게 되는지, 그들이 왜 땅의 표면에서 쓸려나가야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파멸의 목록에 있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그들을 특징짓는 형용사 없이 나열된다. 지구 생물이 멸절되는 원인은 그들의 파멸과 유다의 파멸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니콜라스 워스(Nicholas R. Warse)는 창조계의 파멸(2-3절)이 잇따르는 유다의 역사적 파멸 선언(4절)을 창조계의 파멸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고 읽는다.⁴³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지상의 한 나라, 한 민족의 멸망이 아니라 2-3절과 연결되어 창조계의 멸절로 이해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제임스 노걸스키(James D. Nogalski)는 스바냐에 창세기 1-11장이 암시되어 있으며, 그 암시들이 특정 역사적 실체의 파멸의 의미를 우주적으로 확장한다고 주장한다.⁴⁴ 그는 각 예언의 주요 연결부인 1장 2-3절, 2장 11b, 12-15절, 3장 9-10절에 창세기 1-11장이 암시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스바냐와 원역사 사이에 역전의

43 니콜라스 워스의 읽기는 3절과 4절의 문학적 연관성에 근거한다. 4절은 베카탈(בְּקָטָל) 동사의 접속 사 바브(ו)로 시작하여 베나티티(בְּנִתִּי/피다) 동사가 앞 동사와 시간적 연속성의 관계에 있음을 제시한다. 4b절에서는 3b절에서 쓰인 베히크라티(בְּהִיכְרָתִי/진멸하다) 동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Nicholas R. Warse, "Realigning the Cosmos: The intertextual image of judgment and restoration in Zephan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1 (2020), 116.

44 James D. Nogalski, "Zephaniah's Use of Genesis 1-11," in James D. Nogalski,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Nogalski* (Atlanta: SBL Press, 2017), 241-64.

관계가 있으며, 창세기 1-11장의 암시로 유다의 파멸과 이방 나라들의 파멸은 각각 창조의 취소로 재구성된다고 주장한다.⁴⁵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묘사하는 한편 스바냐 1장 2-3절은 창조계의 진멸을 묘사한다. 창세기 10장은 야벳과 함의 계보를 묘사하는 한편, 스바냐 2장 4-15절은 그들의 파멸을 묘사한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가 저주와 흩어짐이라면, 스바냐 3장 9-10절은 흩은 자들이 모여드는 회복의 메시지이다. 노걸스키는 원역사와의 관계에서 스바냐 1장 2-3절은 잇따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창조계의 진멸로 재설정하고, 2장 11b, 12-15절은 이방나라들(함파 야벳의 후손)의 파멸을 창세기 10장의 이방 나라들의 창조의 취소로 재구성한다고 읽는다.

지구 생물과 인류의 멸절의 원인은 유다와 이방나라들의 죄에서 발견된다. 스바냐는 유다의 죄로 바알숭배와 천체 숭배, 혼합종교, 배교, 야웨에 대한 무관심을 열거한다(46절). 그가 그리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즈음의 유다의 종교 상황(왕하 22-23장)을 반영한다.⁴⁶ 종교적 죄뿐 아니라 정의의 부재, 즉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 불의 또한 야웨의 날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1:9; 3:1, 3).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경제적 죄악과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들이 야웨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드러낸다(신 6:4,9, 13-14; 17:3; 28:30, 39; 29:23 참조).⁴⁷ 유다의 죄가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스바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는 땅의 거주민의 죄가 땅을 오염시켰으므로 야웨께서 땅을 완전히 비워버리고(פָּקַד) 황폐하게 만들것이라 선포한다(사 24:1-5). 예레미야 역시 유다의 죄로 인한 지구공동체의

45 노걸스키의 읽기는 Ben Zvi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와 Adele Berlin (*Zephaniah*)의 읽기에 기초한다.

46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스바냐의 활동 시기를 요시야의 종교개혁(625 B.C.)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최종형태는 페르시아 시대의 산물로 본다.

47 그렉 킹(Greg A. King)은 스바냐가 그리는 야웨의 날의 신현현 이미지와 심판의 이유, 회복의 묘사가 야웨의 날이 모세 계약의 이행임을 가리킨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 King, "The Day of the Lord in Zephaniah," 26-29.

파멸을 선포한다.

…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
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렘 7:20).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편애는 히브리 성서에서 두드러진다. 약자는 전통적으로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하고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생태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약자의 범주를 생태계까지 확장할 때, 야웨의 날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인 자연에게 가혹하다. 천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릇된 종교성으로 인해 그들의 배교에 연루된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인간의 예배를 만류할 수 없다(행 14:8-18). 인간이 불러온 재앙 앞에서 동일한 운명에 처한 동물과 물고기와 새를 포함한 모든 땅 위의 생명체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땅은 불의로 흘러진 피를 받아들였을지라도 그 피는 야웨의 날에 소리를 내지 못한다(창 4:10-11 참조). 발람의 나귀처럼 땅과 땅의 생물들에게 목소리가 허용된다면 그들 역시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로 인해 부르짖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무지개를 두고 맹세한 언약, 즉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창 8:21)는 맹세를 기억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의적이다. 스바냐가 전하는 범생태계의 파멸은 무지개 언약의 무효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야웨의 약속은 무효화되고 땅은 다시 사람으로 인하여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폭력(**צדק**/하마스; 1:9)은 “사회적 약자의 착취와 연관될 경우 탐욕이 그 원인이다.”⁴⁸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 또한 탐욕에서 기인하며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과 착취, 파괴의 형태를 띤다. 화이트는 환경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독교적’ 원리로 “자연은 인간에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존

재 이유를 갖지 않는다”를 들었다.⁴⁹ 스바나가 전망하는 야웨의 날은 인간의 행위가 다른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함으로써 인간의 우월한 지위를 부각하는 인간중심적인 편견을 드러낸다. 야웨의 날의 무차별적인 징계는 야웨가 남겨둘 자들에 대한 언급(3:12-13)으로 그 무차별성이 수정되긴 한다. 그러나 심판이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가리지 않고 땅의 모든 거민(כָּל-אֲשֵׁרֵי הָאָרֶץ/콜 요쉐베 하아레쓰)에게 임한다(1:18)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은 몇 차례 총체적 파멸을 의도했고, 아브라함(창 18:20-33)과 모세(민 14:11-19) 같은 인간 중재자들은 그 불의함을 지적하고 설득하여 그 뜻을 돌이켰다. 신은 비이성적으로 폭주하고 인간은 신을 설득하여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는 씨나리오는 현대의 독자에게 곤혹스럽다.

스바나서에서 땅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장이라는 수동적인 상태로 그려진다. 징계의 주체가 야웨라는 면에서 땅은 야웨의 손에서 학대받는다. 자연의 생존은 인간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스바나가 말하는 인간 책임론은 땅의 학대의 주체가 신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환경운동가들의 진단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이 초래한 환경위기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고통당한다. 그러나 죄와 심판이라는 틀에서 인간의 행동이 자연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전망은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그 구성원이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불의가 지구생태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야웨의 날은 지구생태계의 상호연결성을 제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영향력은 항상 인간계에서 비인간계로 흐른다는 점에서 연결성의 한계가 있다.

48 H. Haage, “כָּל-אֲשֵׁרֵי הָאָרֶץ”,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s.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 David E. Green, vol. IV;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482.

49 White, “The Historical Roots,” 1207.

비인간 생명체의 파멸을 인간의 파멸에 따른 ‘불행한 부작용’⁵⁰으로 보는 것은 지구 공동체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존재 목적이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인류가 사라진 땅에서 인류 이외의 생물은 존재의 목적이 없다는 인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전망은 스바냐 2장의 이방 국가에 대한 파멸 선언에서 더욱 강화된다.

3) 이방의 멸망과 실용적 생태계 평가(2:1-15)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절시 모든 생물이 대상이 되는 반면, 주변 국가에 대한 멸절은 거주민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블레셋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멸망 당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장 1절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에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2:4). 해변 주민 그렛 족속도 진멸의 대상이다. 모압과 암몬은 야웨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야웨의 진노의 날을 맞는다(2:8, 10). 야웨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야웨를 비방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야웨의 날에 심판을 맞게 된다. 니스웨의 교만은 야웨의 징계를 불러온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2:15)는 선언은 신의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파멸을 초래한다.

야웨의 손에 멸망 당할 이방 나라들의 미래는 확일적으로 거주민이 진멸 당하고 문명이 사라진 황무지 상태로 묘사된다.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는 유사하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며, 찢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2:9). 앗시리아와 니스웨는 황폐하게 되

50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170. “불행한 부작용”은 로버츠의 해석에 대한 리덜링휘즈의 부연설명이다. C. J. (Neels) Redelinghuys, “Creation Utterly Consumed? Towards an Eco-critical Rereading of Zephaniah 1:2-6,” *Old Testament Essays* 30.3 (2017), 807.

며 사막같이 마르게 될 것이다(2:13). 인간과 문명의 자리를 대신할 짙레와 소금 구덩이, 사막은 불모의 상징, 건조하고 척박한 땅의 상징이다. 이러한 예언적 전망은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생, 인간에게 유익한 자연과 무익한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다. 인간에게 유익한 자연의 특징은 비옥, 다산, 열매, 번식을 특성으로 한다. 인간의 문명이 사라진 자리는 황무지와 사막, 가시나무와 엉겅퀴, 승냥이, 타조, 들짐승, 올빼미, 부엉이 등 들짐승의 처소가 된다. 땅들은 건조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이며, 짐승들은 부정하여 식용이 금지된 것들이다(레 11:16, 17). 이러한 수사는 다른 예언서에서도 발견된다(사 13:19-22; 34:8-15). 그러나 사막과 황무지에도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동물과 식물이 자생하여 고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언자의 수사는 자연과 그 구성원들을 인간에게 유용한지 여부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특히 열매를 맺으려는(맺게 하려는) 남성의 번식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⁵¹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막과 황무지와 그곳에 존재하는 생태계는 인간중심적인 실용적 가치로 측정되고 평가절하된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평가는 인간에게 무익한 것의 파괴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한다. 생태계의 일부가 파괴될 때 촘촘히 엮여서 서로를 보호하는 지구의 생명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전체적인 지구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혹사당한 땅이 인간의 손으로부터 놓임을 얻고, 그곳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야생 동물들이 채우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 외의 다른 지구 공동체 일원들은 야웨의 징계에서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인간이 비워진 자리

51 마센야는 시편 127편을 읽으며 번식과 열매 맺으려는 남성의 욕구가 여성과 땅을 공동적으로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Madipoane J. Masenya, "An Ecobosani Reading of Psalm 127:3-5," in *The Earth Story in the Psalms and the Prophets* (ed.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09-122.

에 야생이 자리잡게 된다는 야웨의 낱의 전망은 인간과 야생을 공생할 수 없는 대립관계로 둔다.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그때’와는 다르다(사 11:6-9).

4. 맺는말

스바냐가 전망하는 야웨의 낱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진멸을 그린다. 인간의 범죄가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진멸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현재의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가져왔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지구가 야웨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각본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한 각본은 인간과 자연의 위계적 관계와 인간만의 집인 지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상위 생명체인 인간이 신적 진노로 진멸될 때 상위 생명체를 위해 존재하는 하위 존재는 그 존재 가치를 잃고 함께 진멸된다. 자연은 인간에 종속되고, 비인간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은 일방적이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자연의 대상화와 평가절하와 학대를 가져온다.

심판을 가져오는 예언자적 정의라는 잣대는 인간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를 실현할 책임은 인간 공동체에 있는 반면, 불의의 결과는 인간 공동체 뿐 아니라 비인간 지구공동체까지 집어삼킨다. 야웨의 각별한 보호를 받는 전통적 약자(고아, 과부, 나그네)의 범주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구와 지구공동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동물권에 대한 옹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비인간 지구 구성원들을 위한 정의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의 읽기는 지구와 비인간 지구 구성원들이

인간의 확대를 받는 약자로서 인정되도록 정의의 개념이 확대되길 요구한다.

심판을 묘사하는 상징에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숨어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은 상태는 인간에게 무익한 것들, 건조함, 황폐함, 열매 맺지 못함의 상징들과 부정한 동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인간중심적으로 판단하며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심판의 상징 속에서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생은 대립관계에 있다. 문명이 사라질 때 야생이 자리하고, 문명이 들어설 때 야생은 사라진다. 이러한 상징은 인간에게 무익해 보이는 야생의 공격적 개발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지구는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이고 인간에게 무익해 보이는 생명체와 자연은 각각 그물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줄이다. 거미줄의 줄이 하나둘 끊어질 때 거미줄 전체의 기능이 약화되듯 지구 생명체가 하나둘 사라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때 전체 지구의 생존과 번영이 위협받는다.

생태학적 렌즈는 성서의 숨은 전제들과 자연 친화적인 본문,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본문을 드러낸다. 스바냐서의 야웨의 날은 후자에 속한다. 스바냐서의 생태적 읽기는 성서에 내재된 인간중심성이 인간과 자연을 위계적으로 이원화하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 결과 생태 위기를 야기하였음을 각성시킨다. 지구중심적 읽기로의 전환은 성서의 문체적 본문뿐 아니라 무해해 보이는 본문들(예, 황폐의 상징)까지도 적절한 성찰 없이 사용할 때 부지불식 간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적인 정복과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자연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성서에는 새로운 렌즈로 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편견과 억압구조가 깔려있다. 따라서 더 많은 본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생태친화적 인지 변화를 통해 성서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의 생태적 회심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 전환

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지구 공동체의 상호연결성을 잘 표현한 17세기 영국 시인이었던 존 던(John Donne, 1572-1631)이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을 듣고 쓴 시로 마무리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흩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꽃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그리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나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참고문헌

유연희, “그녀가 운다’ - 생태비평으로 읽는 예레미야 12장.” 『성경원문연구』 49 (2021): 50-74.

Ben Zvi, Ehud, *A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Zephaniah*.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www.kci.go.kr

- Berlin, Adele. *Zephani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A. New York: Doubleday, 1994.
- Birch, Bruce C., Walter Brueggemann, Terence E. Fretheim, & David L. Peterse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한국어 역본, 브루스 C. 버치, 월터 부르그만, 테렌스 E. 프레타임, 데이비드 L. 페터슨 지음, 차준희 역,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새물결플러스, 2016.
- Conradie, Ernst. "The Road Towards an Ecolog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Hermeneutics." *Scriptura* 93 (2006): 305-314.
- De Roche, Michael. "Zephaniah 1,2-3: The 'Sweeping' of Creation." *Vetus Testamentum* 30.1 (1980): 104-109.
- Exum, J. Cheryl.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Pages 65-90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ited by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Goldingay, John. "Zephaniah." Pages 93-134 in *Minor Prophets*. Vol. 2. Edited by John Goldingay and Pamela J. Scalise. UBC.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 Haage, H. "זְפַנְיָהוּ". Pages 478-87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 by David E. Green. Vol. IV.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Habel, Norman C.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Pages 1-8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ited by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Atlanta: SBL, 2008.
- _____.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The Earth Bible Commentary 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_____. "Introducing the Earth Bible Commentary Series." Pages 1-16 in *The Birth,*

-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_____.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46.2
(2012): 97-105.
- _____. "Ecological Criticism." Pages 39-58 in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Edited by Steven L. McKenzie and John Kaltn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 Hiebert, Theodore. "Air, the First Sacred Thing: The Conception of אֵר in the Hebrew Scriptures." Pages 9-19 in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ited by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Atlanta: SBL, 2008.
- Hiers, Richard H. "Day of the Lord." Pages 282-83 in *Anchor Bible Dictionary*.
- Horrell, David G., Cheryl Hunt and Christopher Southgate. "Appeals to the Bible in Ecotheology and Environmental Ethics: A Typology of Hermeneutical Stance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1.2 (2008): 219-238.
- Horrell, David G., Cheryl Hunt, Christopher Southgate, and Francesca Stavrakopoulou, eds.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New York: T & T Clark, 2010.
- King, Greg A. "The Day of the Lord in Zephaniah." *Bibliotheca Sacra* 152 (Jan.-Mar. 1995): 16-32.
- Masenya, Madipoane J. "An Ecobosani Reading of Psalm 127:3-5." Pages 109-22 in *The Earth Story in the Psalms and the Prophets*. Edited by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Moncrief, Lewis W. "The Cultural Basis of Our Environmental Crisis." *Science* 170 (1970): 508-512.
- Nogaliski, James D. "Zephaniah's Use of Genesis 1-11." Pages 241-264 in James D. Nogaliski. *The Book of the Twelve and Beyond: Collected Essays of James D. Nogaliski*. Atlanta: SBL Press, 2017.

- Palmer, Clare. "Stewardship: A Case Study in Environmental Ethics." Pages 67-86 in *The Earth Beneath: A Critical Guide to Green Theology*. Edited by Ian Ball, Margaret Goodall, Clare Palmer, and John Reader. London: SPCK, 1992.
- Redelinghuys, C. J. (Neels). "Creation Utterly Consumed? Towards an Eco-critical Rereading of Zephaniah 1:2-6." *Old Testament Essays* 30,3 (2017): 805-20.
- Reuther, Rosemary Radford. "Dualism and the Nature of Evil in Feminist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5,1 (1992): 26-39.
- Roberts, J. J. M.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32.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 Stevenson, Kalinda Rose. "If Earth Could Speak: The Case of the mountains against YHWH in Ezekiel 6; 35-36." Pages 158-171 in *The Earth Story in the Psalms and the Prophets*. Edited by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The Earth Bible Team. "Guiding Ecojustice Principle." Pages 38-53 in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dited by Norman C. Hab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Tuan, Yi-Fu. "Discrepancies between 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ur: Examples from Europe and China." *Canadian Geographer* 12 (1968): 176-191.
- Van Dyk, Peet J. "'Responsible Stewardship' - The Root of All Evil in Eco-Theology?" *Old Testament Essays* 28,2 (2015): 523-35.
- Watson, Francis. "Strategies of Recovery and Resistance: Hermeneutical Reflections on Genesis 1-3 and its Pauline Recep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5 (1992): 79-103.
- Watts, John D. W.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Werse, Nicholas R. "Realigning the Cosmos: The intertextual image of judgment and restoration in Zephan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1 (2020): 111-27.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S.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검색어

생태해석학

스바냐

야웨의 날

지구성서

인간중심주의

Reading Scriptures in an Era of Ecological Crisis - The Day of Yahweh in Zephaniah

Hyo-Myong Lim

Independent Academic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nthropocentric worldview of Christianity is culpable for the ecological crisis we are facing. Diverse biblical and theological responses have been made to address ecological issues, one of which is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hermeneutics. In this study, after an overview of the emergence of ecological readings of the Bible, I apply the methodology formulated by the Earth Bible Project to the book of Zephaniah. I approach the text with suspicion (of anthropocentric bias), identification (with Earth), and an effort to retrieve the voice of Earth from the text. I measure the text against the eco-justice principles proposed by the Earth Bible Project.

www.kci.go.kr

My reading of the Day of Yahweh as doomsday, which is the main message of the prophetic book, reveals its anthropocentric bias. Earth and Earth community become innocent victims of human-caused calamities. Apostasy and injustices on the part of the human beings bring divine wrath upon the whole creation, resulting in a reversal of creation. Prophetic justice does not include Earth and Earth community in the underprivileged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who are traditionally patronized by God. The picture of total destruction runs the risk of devaluing this world's intrinsic worth. Moreover, the prophet's descriptions and imagery of desolation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fter divine judgment epitomize anthropocentric pragmatism. Such an imagery may promote and legitimize the abuse of Earth and the destruction of the life-web of Earth community. I suggest that readers' awareness of anthropocentrism embedded in biblical texts and their interpretations contributes to a better appreciation of Earth and a reformulation of more just relationship with Earth.

Keywords

Ecological Hermeneutics

Zephaniah

The Day of Yahweh

Earth Bible

Anthropocentrism

- 투고일: 2022년 7월 15일
- 심사일: 2022년 8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1일

www.kci.go.kr